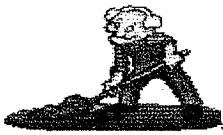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17세기 어느 여신도의 노년을 위한 기도



주님!
주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도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백발노인이 되리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생각을 깊게하되 침울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도와주되 나서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사소한 것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신한 곳으로 정확히 도달할수 있는 날개를 허락하여 주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의 아픔으로 동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커지고 아픔이 반복되더라도 날마다 더 익숙하도록 도와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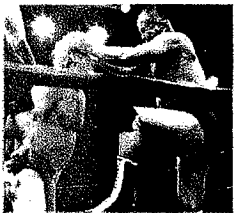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즐길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기를 감히 주께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게도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의 기억력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도록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의 기억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나에게 겸손함을 더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때때로 내가 오해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지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그때에도 체험케 하소서

나는 나의 삶이 성자처럼 되기를 원치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처럼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더욱 심술맞고 고집센 노인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을 추하게 만들 사탄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연륜이 더해갈수록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일을 찾게 하시고
기대밖의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섬세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추억 생각하기▶ 프로 레슬러 김일
김일 레슬링이 있는 날이면 동네 몇 안되는 흑백
TV앞에 모여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릿고개의
시름을 잊게 했던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방,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전 변변한 프로 스포츠 하나 없던
시절에 백성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준 서민의 영웅이
었습니다. 까랑까랑한 목소리 이광재 아나운서의 중
계방송도 한뫼했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12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3월23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그녀의 생일



아내 생일이었던 토요일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설교 준비하러 교회 목양실에 나가 있는
라 오전 내내 아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아내가 자기 생일이라고 외쳤는데도 말입니다. 제 생일날엔
잡채며 미역국이며 해주어서 먹었는지라 잡채는 할 줄 몰라도
미역국은 끓일 줄 알기에 아침에 깜짝쇼 해주어야겠다고 하면
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미역국이고 뭐고 완전히 광된 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 아내와 전화 통화하다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A형의
순발력 있는 지혜(아내는 '잔머리'라고 부름)를 발휘하여 점심사주겠다고 돌
려 막았습니다.

그러고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갑 빈지가 오래인데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할지... 다행히도 아내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월남국수". 그때처
럼 월남국수가 고마운 적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와 차안의 동전 통을 뒤져보
니 국수 값에 팔빙수 값까지 되었습니다. 동전을 아무 주머니나 넣어두는 나
의 칠칠치 못함이 이번엔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디 먹고 싶은 게 그것 뿐이었을까마는 그래도 여러 형편 생각해 월남국수
로 보낸 아내 생일. 식사 후, 전에 살던 동네 한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축하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아내를 들여보내고 목양실에 앉아있는 데 무성의했던 나의 태도를 양심이
자꾸 흔들며 대지만 애써 오뎅한 식사를 같이 먹었다는 것을 억지로 끄집어
내어 양심을 향해 변명의 한마디합니다 " 너무 그러지마, 나도 할만큼은 했어"

엄마가 딸에게
편한 옷으로 학교에 가거라
옷이 날개라지만
옷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서 되겠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더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기를
즐거하거라
설교에서 못듣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		
용 서 의 선 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9(빌 2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다 같 이
찬 송 Hymn	455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 규 임 권 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 가 23:39-43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 무 십 자 가 성 가 대
설 교 Sermon	'같이 가도 목적지가 다르다'	김 성 국 목 사
찬 송 Hymn	98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경덕현, 김인희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 성 국 목 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3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노은숙	김 선 영	예 배 부	김인원, 김종원
9	박일영	김 순 화	김경일, 이선혜	김진근, 민광호
16	이광희	김 심 흥	친교부(주방봉사)	박병민, 박상욱
23	이규임	김 인 원	경덕현, 김인희	박 실, 박재양
30	이재영	김 인 희	유성희(다슬, 다은)	박태원, 서동완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하나님께선
- 똑바로 보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눈동자와
혀바닥엔
화장을 할 수 없게 지으셨습니다. -이석조-

- 교우소식
*최기향 집사: 한국방문위해 24일 출국.
*개업: 신경화 집사. "코웨이 옷수선" ☎ 442-4004. ☐ 14/18 Link Dr. Glenfield. 코웨이식품점內
- '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
*글자가 틀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쓸까요? 남편과 같이 쓰면 안되나요? 등 물으시는
분들의 말씀속에 정성이 가득 담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문의: 박병민 집사)
- 주차안내: 교회당 뒷편 주차장은 어린이, 학생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기 위해 교회
옆 U-BIX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racking Club: 움츠려들기 쉬운 겨울을 앞에 두고 Tracking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걸으며 천국까지 함께 가는 발걸음 또한 되는
Tracking Club의 창설과 조직, 운영을 책임져 주실 자원교우를 기다립니다.
- 새벽기도회: 3월은 "교우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갖습니다. 우리교회나 가까운 이웃
교회 참여하여 드리는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6:00am
- 수요일예배: 찬양, 기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1시간은 나와 가정을 위해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수요일 7:30pm
- 제1남여선교회 정기회의(예고). 다음주 예배 후 모입니다(출수달)

◀착한 시인들▶ 추억 -조병화-

잊어 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 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무리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 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노래말로 먼저 배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시입니다.
어릴적부터 들어온 유명인들
의 이름이 세상에서 하나 둘
지워지면 그들이 남긴 아름다
움은 서러움에 겨운 순백의 여
운이 되어 다가옵니다
내가 떠나면 무엇으로 남아질지.
얼마전 들려온 시인의 별세소식
에 흥얼거리려 본 그의 시 노랫
말이었습니다